

# 인프라·개최 역량 차별화 최적지 부각

## ■실사단 평가와 광주시 대응전략

### 시민 열정·환경·재정 등 17항목 평가 완벽한 경기·교통·숙박 시설로 승부

광주시는 6일~9일까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실사단의 방문 기간 동안 광주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 최적지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한다.

광주시는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경기장, 숙박·교통시설 등 '준비된' 도시 인프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화와 화합의 유니버시아드(Peaceversiad)', '과학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을 구현한 '최첨단 IT유니버시아드(Technoversiad)', '문화예술 유니버시아드(Cultureversiad)',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대회(Ecoversiad)' 대회를 내세워 FISU 역사상 최고의 대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실사단 평가와 대응전략=실사 주요 평가항목은 ▲시민들의 개최 열정 ▲도시환경 ▲재정 ▲정치사회적 안정성 ▲미디어 부문 등 총 17개 항목이다.

시는 사실상 실사의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의 스포츠 인프라' '숙박·교통 여건' '정부의 대회 개최·지원 의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실사단이 입국하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사단과 면담을 갖고 범 국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오찬을 통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적인 개최 의지에서 합력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낙

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가단이 방문할 주요 경기장과 숙박시설이 국제대회를 치를 역량과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실사단에 선보일 광주·전남 23개 경기장의 활용비전으로 '친환경 경제대회(Ecoversiad)'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기존 경기장을 국제적인 규모로 리모델링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대형경기장 신축을 공약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최적 대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또 지난 2013대회 실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도 마쳤고, 선수단 입·출국 교통편의 제공 등 대회 개최여건에 보완작업도 마쳤다.

◇프리젠테이션 어떤 내용 담았나=실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식 프레젠테이션은 총 2차례. 비공개로 진행될 프레젠테이션에서 광주는 컴퓨터 그래픽 등 첨단IT 기술을 활용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최적의 도시 광주' (Best Gwangju)를 강조한다.

첫 프레젠테이션(PT)은 실사단이 광주에 도착하는 6일 오후 5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시는 이날 PT에서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 관계자들이 4일 담양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주영찬 담양 부군수(맨 왼쪽)로부터 실사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시는 이날 광주·전남 23개 경기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광주시제공>

일정과 정치적 법적 측면, 입국과 세관 절차, 재정,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조건을 설명한다.

특히 인천-광주공항간 전세기 운영을 통한 빠르고 간편한 입국, 편리한 세관 절차, 월드컵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을 살릴 수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 PT는 광주 방문 이틀째인 7 오전 8시30분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자리는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촌, 경기장, 교통수송 여건, 탄탄한 재정 계획을 제시, 신뢰를 얻을 방침이다.

스포츠 인프라에서도 대규모 국제 경기를 치르기에 손색없는 17개 종목의 모든 경기장이 이미 준비돼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종 PT는 광주 방문 이틀째인 7 오전 8시30분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자리는

U대회 운영사항과 광주에 남길 대회 유산 등에 대해 보고한다.

2015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와 올림픽,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대한민국의 경험, 안정된 체제와 안전 시스템 등 광주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FISU 실사단 주요일정		
6일(월)		
오후 4시 45분 오후 5시 30분 오후 8시	광주공항 DJ센터 라마다호텔	광주도착 1차 프레젠테이션 환영만찬
7일(화)		
오전 8시 30분 오전 9시 35분 오전 10시 5분 오후 1시 오후 6시 오후 8시	DJ센터 주요 호텔 등 월드컵경기장 라마다호텔 DJ센터 전남대종합운동장	2차 프레젠테이션 숙박시설 점검 경기장 실사 대학스포츠연맹위원장 오찬 광주시장, 유치위원장 공식만찬 열린음악회 참석
8일(수)		
오전 8시 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40분	무등경기장 등 DJ센터 DJ센터 DJ센터 라마다호텔	경기장 실사 실사단 자체회의 유치위원회-실사단 합동회의 기자회견 환영만찬
9일(목)		
오전 9시 45분	광주공항	출국

## 대만총통 "전폭 지원"

### 3~5일 타이페이 실사 실사단 만나 의지 표명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실사단이 5일 대만 타이페이에 대한 실사를 마치는 등 U대회 유치 신청 도시들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실사단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점에 주목,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로 예정된 실사단과의 오찬·면담에서 한층 차별화되고 확고한 지원의지를 표명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공식 홈페이지(www.fisu.net)에서 3~5일까지 진행된 대만 타이페이에 대한 실사 내용을 주요 뉴스로 게재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잉주 대만 총통은 실사 첫날 관저에서 실사단을 영접,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마잉주 총통은 "타이페이는 U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를 치를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2015 대회가 타이페이에서 열린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은 "개최 도시의 정부가 전폭 지원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치적 역량집중, 지원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사단에 큰 신뢰를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사단은 이어 2박3일 동안 타이페이 다목적 실내경기장, 건립 추진중인 수영·다이빙 센터, 문화대학 스포츠 홀 등 대만 유치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경기장을 실사했다. 캐나다 에드먼튼에 대한 실사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다.

광주시는 우선 실사에서 드러난 대만의 도시 환경·스포츠 여건 등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경쟁국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사단의 평가는 U대회 유치의 최대 관문이기 때문이다. 실사단은 광주를 비롯해 타이페이, 에드먼튼 3개 도시를 둘러본 뒤 FISU 집행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오는 5월23일 대회 개최지 표결에 참가하는 FISU 집행위원 27명에게 공개돼 투표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료로 작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회 광주 유치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방문 실사단 5인

### 스포츠계 잔뼈 굵은 5국 체육 행정가 4명은 작년 광주 실사 참여한 '知光派'

6일 광주를 방문하는 실사단은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터키, 일본 등 5개국 5명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각각 스포츠계에서 잔뼈가 굵은 체육 행정가들이다. 이들은 U대회 개최 희망도시의 여건을 평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FISU 집행위에 제출하는 '사정관(査定官)'이자, 오는 5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표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루시아노 카브랄(37·브라질) 집행위원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지난해 2013 U대회 광주 실사를 진행한 '지광파'(知光派) 인사들이다.

실사단장인 스테판 버그(47·스웨덴)는 FIS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육살라 대학 교육학부 학장을 거쳐

지난 1988년부터 스웨덴 스포츠 연맹 스포츠 정책부장을 지내면서 스웨덴 체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루시아노 카브랄은 브라질 유도 챔피언 출신으로 브라질 대학스포츠연맹 유도 감독을 거쳐 대학스포츠연맹 회장, 국가스포츠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FISU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알라고아

스 연방대학 교수를 맡고 있다.

말롬베트 라레트(42·남아공)는 FISU 집행위원회 수석위원으로서 약학을 전공한 학구파, 남아공 대학스포츠연맹 회장과 올림픽위원 의장을 지냈다. 히사토 이가라시(58·일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다. 일본 체조협회 이사회 회원, 나가타

국립스포츠 축제 개막식 부회장을 지냈다.

케말 터머(54·터키)는 터키 앙카라 '가지' 대학 체육학 교수이며 터키 대학 스포츠연맹회장, 국가 스포츠 교육 및 리서치 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크리스티안 피에르(36·벨기에) FISU 사무국 미디어 담당관도 동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우리의 약속은, 장기에

#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항!!!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편은, 광주MBC문화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2009년 2월 15일 화요일 14:00 출발

**749,000원**

2009년 2월 15일 화요일 16:00 출발

**799,000원**

\*이름: 김민준(김민준), 성: 김민준, 생년월일: 1988.01.01, 직업: 학생,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동 2-1,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kimminjun@gmail.com

\*문의: 062-226-6070